

01

다음 글을 읽고,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빈칸에 들어갈 말을 우리 말로 쓰시오.

Inexperienced writers often make the mistake of thinking that they have a firmer grasp on their ideas than on their words. They frequently utter the complaint, "I know what I want to say; I just can't find the words for it." This claim is almost always untrue, not because beginning writers are deliberate liars but because they confuse their intuitive sense that they have something to say with the false sense that they already know precisely what that something is. When a writer is stuck for words, the problem is rarely a problem only of words. Inexperienced writers may think they need larger vocabularies when what they really need are clearer ideas and intentions. Being stuck for words indicates that the thought one wants to convey is still vague, unformed, cloudy, and confused. Once you finally discover your concrete meaning, you will discover the proper words for expressing it at the same time.

초보 작가들이 "하고 싶은 말은 아는데 단어를 못 찾겠다"고 느끼는 것은 사실 단순한 _____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전달하려는 _____가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02

다음 글을 읽고, 글의 내용을 요약한 문장이 되도록 주어진 단어들을 바르게 배열하십시오.

We cannot read with our eyes immobilized and our mind asleep. Many people suppose that the writer must put out some effort, but no work needs to be done by the reader. The mistake here is to suppose that receiving communication is like receiving a legacy passively. On the contrary, there can be no absolutely passive reading. The reader is like the catcher in a game of baseball. Catching the ball is just as much an activity as pitching it. The pitcher is the sender in the sense that his activity initiates the motion of the ball. The catcher is the receiver in that his activity terminates it. Both are active, though the actions are different. If anything is passive, it is the ball itself, whereas the players are active, moving to pitch or catch. The analogy with writing and reading is almost perfect.

Reading is not _____.

주어진 단어

activity / but / an active process / a passive / in
which / readers / participate / as much as / writers
do

03

다음 글을 읽고, 글의 요지를 요약한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표현을 쓰시오. 단, 본문의 “arrows of causation running in both directions”의 의미가 드러나도록 쓸 것.

Science enters society via technologies that continue to transform the human condition. Medical research discovers cures for dread diseases, physical and astronomical calculations enable travel to the moon. Much hinges on the belief that science has made for a better world. The cultural authority of scientists in society may be traced back to people’s assumption that technological progress is dependent upon scientific research and knowledge. But is it so? The boundary separating science from technology is itself blurred and overlapping, with arrows of causation running in both directions. Historians tell us that progress in physics depended upon the steam engine more significantly than the invention of the steam engine depended upon abstract theories of physics. Engineers, technicians, scientists, craft workers, entrepreneurs, inventors, investors, managers, and many others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salutary machines and devices, often in a seamless way, and with no particular sequence (science may, or may not, be the fount).

Contrary to the common belief that technology depends mainly on science, the writer argues that science and technology have a(n) _____ relationship, and technological progress is made by various people.

04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문장이 되도록, 주어진 단어들을 바르게 배열하시오.

A need can be defined in relation to a social standard. Since all people have a biological need for food in order to survive, this need may be seen as being independent of any social standard, but only if a person is considered simply to be a biological organism. But biological existence is not equivalent to human life. When socially organized efforts are undertaken to feed starving people, the efforts are not made merely to maintain the number of live human organisms on earth. To be human is to participate, in one way or another, in society, and to feed starving people is to acknowledge that their need for food is not merely a need to remain alive but a need to continue their participation in human society. Human beings seek to survive _____.

주어진 단어

as / merely / biological organisms / but / not / as
individuals / who / can function / in the society / in
which / they live

05

다음 글의 밑줄 친 ①~⑤ 중 어법상 틀린 세 곳을 찾아 바르게 고쳐 쓰시오.

Imagine that you are a piece of iron. So there you are, sitting around doing nothing, as usual, when along comes a drop of water. What will be your perception of the water? Yes, of course, a bar of iron doesn't have a brain, and it wouldn't have any perception at all. But let's ignore that inconvenient fact and imagine ① what would it be like if a bar of iron could perceive the water. From the standpoint of a piece of iron, water is above all rustish. Now return to your perspective as a human. You know that rustishness is not really a property of water itself but ② how it reacts with iron. The same is true of human perception. When you see grass as green, the green is ③ no more a property of grass than rustish is a property of water. Green is the experience that ④ result when the light ⑤ bouncing off grass reacts with the neurons in your brain. Greenness is in us, just as rust is in the piece of iron.

06

다음 글의 밑줄 친 A, B가 가리키는 대상을 각각 우리말로 쓰시오.

Imagine that on your first day working at a record store, your manager says, "Our records are organized alphabetically." Under (A) this direction, you file your first pack of albums with ease. Later, you overhear a coworker saying, "Sorry, it looks like we're sold out of Michael Jackson right now." Your manager looks under "J" and checks the inventory, which says the store should have a single copy of Thriller. You remember that (B) it was part of the shipment of records you just filed. Where else could you have put that record, if not under "J"? Maybe under "M"? The ambiguity that's wrapped up in something as simple as "alphabetize these" is truly amazing. We give and receive instructions all day long. Ambiguous instructions can weaken our structures and their trustworthiness. It's only so long after that first album is misfiled that chaos ensues.

이 1번 해설

지문 내용 이해형 서술형

정답 어휘 / 생각과 의도

하용 정답 단어 / 생각, 표현 / 의미, 어휘력 / 구체적인 의미, 말 / 전달하려는 내용

1. 지문 한국어 해석

미숙한 작가들은 종종 자신이 단어보다 생각을 더 확실히 알고 있다고 착각한다. 그들은 자주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아는데, 그걸 표현할 단어를 찾지 못하겠다”라고 불평한다. 이 주장은 거의 항상 사실이 아니다. 초보 작가들이 일부러 거짓말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막연한 느낌을 자신이 이미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잘못된 느낌과 혼동하기 때문이다. 작가가 단어를 찾지 못해 막힐 때, 그 문제는 단순히 단어만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다. 미숙한 작가들은 자신에게 더 많은 어휘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필요한 것은 더 명확한 생각과 의도이다.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전달하려는 생각이 아직 막연하고, 형성되지 않았으며, 흐릿하고, 혼란스럽다는 것을 나타낸다. 마침내 자신의 구체적인 의미를 발견하면, 그것을 표현할 적절한 단어도 동시에 발견하게 될 것이다.

2. 지문 독해의 핵심 포인트

이 글의 핵심은 글쓰기에서 단어 부족처럼 보이는 문제가 사실은 생각의 불명확함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초보 작가들은 “나는 말하고 싶은 내용은 알고 있는데 단어만 못 찾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필자는 이것이 착각이라고 본다.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전달하려는 생각 자체가 아직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았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지문은 ‘어휘 부족은 진짜 원인이 아님 / 생각과 의도의 불명확함이 진짜 원인’이라는 대비 구조로 읽어야 한다.

3. 서술형 문제 독해 및 문제풀이

문제의 핵심 단서는 본문의 다음 문장이다.

Inexperienced writers may think they need larger vocabularies when what they really need are clearer ideas and intentions.

초보 작가들은 더 많은 어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필요한 것은 더 명확한 생각과 의도라고 했다. 따라서 첫 번째 빈칸에는 겉으로 보이는 문제인 ‘어휘’, 두 번째 빈칸에는 실제 원인인 ‘생각과 의도’가 들어가야 한다.

완성 문장 초보 작가들이 “하고 싶은 말은 아는데 단어를 못 찾겠다”고 느끼는 것은 사실 단순한 어휘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전달하려는 생각과 의도가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4. 조심해야 할 오답

- × **문법 / 생각** — 글은 문법 오류가 아니라 단어를 찾지 못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 × **철자 / 의미** — 철자 문제는 지문에서 언급되지 않는다.
- × **글쓰기 실력 / 단어** — 두 번째 빈칸에 ‘단어’를 쓰면 필자의 핵심 주장과 반대가 된다.
- × **표현력 / 문장** — 표현력은 어느 정도 관련 있지만, 본문의 정확한 핵심은 생각과 의도의 명확성이다.
- × **지식 / 어휘** — 글은 배경지식 부족이 아니라 생각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채점 기준 · SCORING

2점 어휘·단어·표현 계열과 생각과 의도·의미·전달하려는 내용 계열을 모두 정확히 쓴 경우 · **1점** 둘 중 하나만 정확히 쓴 경우 · **0점** 문법·철자·지식 등 지문의 핵심 원인과 관련 없는 답을 쓴 경우.

02 2번 해설

요약문 / 단어 배열·어법

정답

Reading is not a passive activity but an active process in which readers participate as much as writers do.

1. 지문 한국어 해석

우리는 눈이 움직이지 않고 마음이 잠든 상태로는 읽을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은 글쓰기는 노력을 해야 하지만, 독자는 아무런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여기서의 실수는 의사소통을 받는 것이 유산을 수동적으로 받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반대로, 완전히 수동적인 읽기란 있을 수 없다. 독자는 야구 경기의 포수와 같다. 공을 받는 것은 공을 던지는 것만큼이나 하나의 활동이다. 투수는 공의 움직임을 시작한다는 점에서 보내는 사람이다. 포수는 그 움직임을 끝낸다는 점에서 받는 사람이다. 둘 다 능동적이지만, 그 행동은 서로 다르다. 만약 수동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공 자체이며, 선수들은 던지거나 받기 위해 움직이는 능동적인 존재이다. 글쓰기와 읽기의 유사성은 거의 완벽하다.

2. 지문 독해의 핵심 포인트

이 글의 핵심은 읽기는 수동적인 수용이 아니라 능동적인 활동이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글쓰기만 노력하고 독자는 단순히 받아들이기만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필자는 독자를 야구의 포수에 비유한다. 포수가 공을 받는 것도 투수가 공을 던지는 것만큼 하나의 활동인 것처럼, 독자 역시 글을 이해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따라서 이 지문은 writer = pitcher, reader = catcher의 비유를 통해 읽기와 쓰기 모두 능동적인 의사소통 활동이라는 점을 설명한다.

3. 서술형 문제 독해 및 문제풀이

요약문은 Reading is not ...으로 시작한다. 지문의 핵심이 ‘읽기는 수동적인 활동이 아니라 능동적인 과정이다’이므로, 먼저 not A but B 구조를 떠올려야 한다. A에 해당하는 말은 a passive activity이고, B에 해당하는 말은 an active process이다.

그다음 an active process를 뒤에서 설명하는 관계사절 in which readers participate가 이어진다. 여기서 which는 앞의 process를 가리키며, in which는 ‘그 과정 안에서’라는 의미이다. 마지막의 as much as writers do는 ‘글쓰기들이 그러는 것만큼’이라는 비교 표현이다.

따라서 정답은 a passive activity but an active process in which readers participate as much as writers do이다.

4. 조심해야 할 오답

- × a passive but activity an active process — a passive activity라는 명사구가 깨진다.
- × a passive activity but active process — process 앞에는 관사 an이 필요하다.
- × an active process but a passive activity — 수동적 활동이 아니라 능동적 과정이라는 글의 핵심과 반대이다.
- × ... participate as much as writers — 비교절에서 대동사 do가 빠져 문장이 불완전하다.

채점 기준 · SCORING

3점 전체 배열이 정확한 경우 · **2점** not A but B와 in which 구조는 맞지만 관사나 비교 표현에 작은 오류가 있는 경우 · **1점** 핵심 의미는 일부 드러나지만 어순 오류가 큰 경우 · **0점** 수동/능동 관계를 반대로 쓰거나 문장 의미가 지문과 어긋나는 경우.

03 3번 해설

요약문 빈칸 완성형

정답 two-way

허용 정답 mutual / interactive / reciprocal / interdependent

1. 지문 한국어 해석

과학은 계속해서 인간의 조건을 변화시키는 기술을 통해 사회에 들어온다. 의학 연구는 무서운 질병의 치료법을 발견하고, 물리학과 천문학의 계산은 달 여행을 가능하게 한다. 많은 것은 과학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왔다는 믿음에 달려 있다. 사회에서 과학자들이 가지는 문화적 권위는 기술 발전이 과학 연구와 지식에 의존한다는 사람들의 가정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 과학과 기술을 나누는 경계는 그 자체로 흐릿하고 서로 겹쳐 있으며, 인과관계의 화살표는 양방향으로 작용한다. 역사가들은 증기기관의 발명이 추상적인 물리학 이론에 의존했던 것보다, 물리학의 발전이 증기기관에 더 크게 의존했다고 말한다. 기술자, 과학자, 장인, 기업가, 발명가, 투자자, 관

리자 등 많은 사람들이 유익한 기계와 장치의 발전에 기여하며, 그 과정은 흔히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연스럽고, 특별한 순서 없이 이루어진다. 과학이 그 원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2. 지문 독해의 핵심 포인트

이 글은 처음에는 과학의 긍정적 역할을 말하는 것처럼 시작한다. 의학 연구와 달 여행 같은 예시를 통해 과학이 사회와 기술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일반적인 믿음을 제시한다.

하지만 핵심은 중간 질문인 But is it so? 이후에 나온다. 필자는 기술 발전이 과학 연구에만 의존한다는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과학과 기술은 한쪽이 다른 한쪽을 일방적으로 만들어내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다.

특히 arrows of causation running in both directions는 이 지문의 핵심 표현이다. 인과관계의 화살표가 양쪽 방향으로 간다는 말이므로, 과학이 기술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기술이 과학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빈칸에는 양방향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 들어가야 한다.

3. 서술형 문제 독해 및 문제풀이

요약문 앞부분의 Contrary to the common belief는 ‘일반적인 믿음과 달리’라는 뜻이다. 일반적인 믿음은 technology depends mainly on science, 즉 기술이 주로 과학에 의존한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필자는 이 믿음을 반박한다. 본문에서 과학과 기술의 경계가 흐릿하고, 인과관계가 양방향으로 작용한다고 했으므로, 빈칸에는 과학과 기술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의미가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답은 two-way이다.

Contrary to the common belief that technology depends mainly on science, the writer argues that science and technology have a **two-way** relationship, and technological progress is made by various people.

4. 조심해야 할 오답

- × one-way — 과학이 기술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뜻이 되어 글의 핵심과 반대이다.
- × dependent — 기술이 과학에 의존한다는 통념을 반복하는 답이다.
- × scientific — 단순히 ‘과학적인’이라는 뜻이라 상호 영향 관계가 드러나지 않는다.
- × technological — ‘기술적인 관계’라는 의미일 뿐, 양방향성이 없다.
- × causal — 인과관계라는 의미는 있지만, 양방향 관계라는 핵심이 부족하다.
- × close / complex — 관계의 성격은 나타내지만 인간의 핵심인 양방향성을 직접 드러내지 못한다.
- × blurred / overlapping — 본문 표현이지만 relationship과 결합하면 어색하고 상호 영향의 의미가 약하다.

채점 기준 · SCORING

2점 two-way-mutual-interactive-reciprocal-interdependent처럼 상호 영향을 정확히 표현한 경우 · **1점** related-connected처럼 관계성은 드러내지만 양방향 영향의 의미가 약한 경우 · **0점** one-way-dependent-scientific-technological처럼 글의 핵심과 어긋나거나 의미가 불충분한 경우.

04 4번 해설

빈칸 채우기 / 단어 배열-어법

정답

not merely as biological organisms but as individuals who can function in the society in which they live

1. 지문 한국어 해석

필요는 사회적 기준과 관련하여 정의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생존하기 위해 음식에 대한 생물학적 필요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필요는 어떤 사회적 기준과도 독립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단순히 생물학적 유기체로만 여겨질 때에만 그렇다. 그러나 생물학적 존재는 인간다운 삶과 동일하지 않다.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조직된 노력이 이루어질 때, 그 노력은 단지 지구상에 살아 있는 인간 유기체의 수를 유지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사회에 참여하는 것이며,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음식에 대한 그들의 필요가 단순히 살아남기 위한 필요가 아니라 인간 사회에 계속 참여하기 위한 필요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인간은 단순히 생물학적 유기체로서가 아니라,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 안에서 기능할 수 있는 개인으로서 생존하고자 한다.

2. 지문 독해의 핵심 포인트

이 글은 인간의 ‘필요’를 단순한 생물학적 생존의 차원에서만 보아서 안 된다고 말한다.

음식은 생존에 필요한 것이므로 겉으로는 사회적 기준과 무관한 생물학적 필요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필자는 인간의 삶이 단순히 살아 있는 유기체의 상태와 같지 않다고 본다. 인간은 사회 안에서 참여하고 기능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굶주리는 사람을 돕는 것은 단순히 생명을 유지시키는 일이 아니라, 그들이 인간 사회 안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마지막 문장은 이 핵심을 압축한다.

3. 서술형 문제 독해 및 문제풀이

빈칸 앞의 Human beings seek to survive는 ‘인간은 생존하고자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글의 핵심은 인간이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살아남는 것만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따라서 먼저 not merely A but B 구조를 잡아야 한다. A는 as biological organisms, B는 as individuals이다. 두 표현은 모두 as로 시작하는 병렬 구조이다.

그다음 individuals를 뒤에서 who can function이 수식한다. 마지막의 in the society in which they live는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 안에서’라는 뜻이며, in which는 society를 받는 전치사 + 관계대명사 구조이다.

따라서 정답은 not merely as biological organisms but as individuals who can function in the society in which they live이다.

4. 조심해야 할 오답

- × not as merely biological organisms — merely의 위치가 어색하고 not merely A but B 구조가 깨진다.
- × not merely biological organisms but as individuals — A와 B의 병렬이 맞지 않는다. as biological organisms / as individuals로 맞춰야 한다.
- × as biological organisms but not merely as individuals — 글의 의미가 반대로 흐른다.
- × who can function in which they live the society — in which they live가 society를 수식해야 하므로 어순이 깨진다.
- × in the society which they live — live가 자동사이므로 전치사 in이 필요하다. 원문의 in which they live가 적절하다.

채점 기준 · SCORING

3점 전체 배열이 정확한 경우 · **2점** not merely A but B와 who 관계 사절은 맞지만 in which 구조나 세부 어순에 작은 오류가 있는 경우 · **1점** 핵심 의미는 일부 드러내지만 병렬 구조가 불완전한 경우 · **0점** 관계를 반대로 쓰거나 문장 구조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05 5번 해설

어법에 맞게 고치기

- 정답** ① what would it be like → what it would be like /
 ② how it reacts → of how it reacts / ④ result → results
 ③ no more, ⑤ bouncing은 어법상 맞는 표현이다.

1. 지문 한국어 해석

“녹색은 우리 안에 있다.” 당신이 철 조각이라고 상상해 보라. 그렇게 당신은 평소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는데, 물 한 방울이 다가온다. 물에 대한 당신의 지각은 무엇일까? 물론 철 막대는 뇌가 없고, 어떤 지각도 전혀 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 불편한 사실은 무시하고, 철 막대가 물을 지각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어떤 느낌일지 상상해 보자. 철 조각의 관점에서 보면, 물은 무엇보다도 녹슬게 하는 성질을 가진 것이다. 이제 인간으로서의 당신의 관점으로 돌아와 보자. 당신은 녹슬게 하는 성질이 사실 물 자체의 속성이 아니라, 물이 철과 반응하는 방식의 속성이라는 것을 안다. 인간의 지각도 마찬가지이다. 당신이 풀을 녹색으로 볼 때, 그 녹색은 물의 속성이 녹슬게 하는 성질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풀의 속성이 아니다. 녹색은 풀에서 반사되는 빛이 당신의 뇌 속 뉴런과 반응할 때 생겨나는 경험이다. 녹색은 우리 안에 있다. 녹이 철 조각 안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2. 지문 독해의 핵심 포인트

이 지문은 우리가 사물의 속성이라고 생각하는 색이 사실 사물 자체에 들어 있는 성질이 아니라, 사물에서 오는 빛이 우리의 뇌와 반응하면서 생기는 경험이라고 설명한다.

글은 먼저 철 조각과 물의 예시를 든다. 철의 관점에서 물은 ‘녹슬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녹슬게 하는 성질은 물 자체의 속성이 아니라 물이 철과 반응하면서 생기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풀의 녹색도 풀 자체의 속성이 아니라, 빛과 우리의 뇌가 반응하면서 생기는 지각 경험이다.

따라서 핵심은 색은 대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과 지각 주체의 상호작용 속에서 생겨나는 경험이라는 점이다.

3. 서술형 문제 독해 및 문제풀이

- ① 간접의문문 어순을 묻는다. imagine의 목적으로 의문절이 들어간 구조이므로, 직접의문문 어순 what would it be like가 아니라 간접의문문 어순 what it would be like가 맞다.
- ② 병렬 구조를 묻는다. not really A but B에서 A는 a property of water itself이다. 뒤의 B도 a property와 연결되어야 하므로 but of how it reacts with iron이 되어야 한다.
- ③ 맞는 표현이다. no more A than B는 ‘B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A도 아니다’라는 뜻으로, 녹색이 풀의 속성이 아니라는 의미이므로 맞다.
- ④ 주어-동사 수일치 문제이다. that results의 선행사는 the experience로 단수이므로 관계사절의 동사도 results가 되어야 한다.
- ⑤ 맞는 표현이다. the light bouncing off grass는 ‘풀에서 반사되는 빛’으로, 능동 의미이므로 현재분사 bouncing이 맞다.

4. 조심해야 할 오답

- × ① what it will be like — 가정 상황이므로 원문처럼 would가 적절하다.
- × ② but that how it reacts — property of A but of B 병렬 구조가 깨진다.
- × ③ not more로 고치기 — 원문 no more A than B가 맞는 비교 구문이다.
- × ④ resulted — 현재시제 문맥이며 선행사 experience와도 맞지 않는다.
- × ⑤ bounced로 고치기 — the light가 반사되어 나오는 능동 의미이므로 bouncing이 맞다.

채점 기준 · SCORING

3점 ①·②·④를 모두 정확히 찾아 바르게 고친 경우 · **2점** 셋 중 두 개를 고친 경우 · **1점** 셋 중 한 개를 고친 경우 · **0점** 정답이 없거나 맞는 표현인 ③·⑤를 틀렸다고 고친 경우.

06 6번 해설

대명사 지칭

정답 A — 음반을 알파벳순으로 정리하라는 지시 / B — (마이클 잭슨의) Thriller 앨범

1. 지문 한국어 해석

당신이 음반 가게에서 일하는 첫날이라고 상상해 보라. 매니저가 “우리 음반들은 알파벳순으로 정리되어 있어요”라고 말한다. 이 지시에 따라 당신은 첫 번째 음반 묶음을 쉽게 정리한다. 나중에 당신은 동료 가 “죄송하지만, 지금 마이클 잭슨 음반은 다 팔린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 것을 듣는다. 매니저는 “J” 아래를 살펴보고 재고를 확인하는데, 재고상으로는 가게에 Thriller 한 장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당신은 그것이 방금 당신이 정리한 배송 음반들 중 일부였다는 것을 기억한다. “J”가 아니라면 그 음반을 어디에 둘 수 있었을까? 어쩌면 “M” 아래였을까? “이것들을 알파벳순으로 정리하라”처럼 단순한 말 안에 담긴 애매함은 정말 놀랍다. 우리는 하루 종일 지시를 주고받는다. 애매한 지시는 우리의 구조와 그 신뢰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첫 번째 앨범이 잘못 분류되고 나면 곧 혼란이 뒤따른다.

2. 지문 독해의 핵심 포인트

이 글의 핵심은 단순히 보이는 지시도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애매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음반을 알파벳순으로 정리하라’는 말은 쉬워 보인다. 그러나 Thriller를 어디에 꽂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면 문제가 생긴다. 가수 이름 Michael Jackson을 기준으로 하면 J, 이름의 첫 글자를 기준으로 하면 M, 앨범 제목 Thriller를 기준으로 하면 T일 수도 있다. 글은 이 애매함을 통해 지시가 명확하지 않을 때 구조와 신뢰성이 약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대명사와 지시 표현을 읽을 때는 앞에 나온 단어 하나만 기계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문맥 속에서 어떤 내용이나 대상을 가리키는지 확인해야 한다.

3. 서술형 문제 독해 및 문제풀이

A. this direction은 바로 앞 문장의 “Our records are organized alphabetically.”를 가리킨다. 따라서 단순히 ‘방향’이 아니라 ‘음반을 알파벳순으로 정리하라는 지시’라고 써야 한다.

B. it은 바로 앞의 inventory, store, Michael Jackson이 아니라, 재고 상 한 장 있어야 한다고 언급된 Thriller를 가리킨다. 뒤이어 that record라고 다시 받는 대상도 Thriller이다.

따라서 A는 지시 내용, B는 구체적인 음반을 가리킨다.

4. 조심해야 할 오답

× A를 ‘매니저’로 쓰는 경우 — this direction은 사람이 아니라 앞 문장의 지시 내용을 가리킨다.

× A를 ‘첫 번째 음반 묶음’으로 쓰는 경우 — first pack of albums는 지시를 따른 뒤 정리한 대상이지 this direction의 내용이 아니다.

× B를 ‘Michael Jackson’으로 쓰는 경우 — it was part of the shipment라고 했으므로 사람이 배송 음반의 일부일 수 없다.

× B를 ‘inventory’로 쓰는 경우 — 재고 목록이 배송 음반의 일부라는 뜻이 되어 문맥상 맞지 않는다.

채점 기준 · SCORING

2점 A와 B를 모두 정확히 쓴 경우 · 1점 둘 중 하나만 정확히 쓴 경우 · 0점 둘 다 지칭 대상이 틀리거나 지나치게 모호한 경우.